어린이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 평론상 문학상 제정 등 의욕

최근 호황세가 다소 꺾였다는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 근년 출판시장에서의 어린이 책의 성장을 반영하듯 어린이문학 전문잡지 두 종이 동시에 창간됐다.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창비어린이〉 여름호와 푸른책들에서 펴낸 〈동화읽는가족〉 6월호가 그것.

두 잡지는 어린이문학 전문지를 표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외에는 서로 뚜렷하게 변별되는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발간 형태가 다른데 〈창비어린이〉는 계간이고 〈동화읽는가족〉은 월간이다. 두 잡지는 핵심 독자층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이에 맞게 콘텐츠를 차별화했다.

〈창비어린이〉는 어린이문학 종사자들, 이를테면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출판사 편집자들과 학교 교사, 학부모 계층을 주요 독자층으로 잡고 있다. 이를 통해 "기성작가의 피로와 신인작가의 부진" 등으로 "답보하거나 퇴행하고 있는" 아동문학 판에 생산적인 논의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창비어린이〉 창간을 준비한 편집위원 김이구 창작과비평사 이사는 잡지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까지 어린이문학에 대한 논의는 매우 협소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창비어린이〉는 살아 있는 비평,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비평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문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교육 환경 같은 관련문화와의 생산적인 접점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창비어린이〉는 창간호에서 〈한국 아동문학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의 특집을 마련, 어린이문학의 현주소와 서 있는 자리를 반성적으로 되짚어보는 네 편의 글을 싣고 있다. 내실 있는 창작란도 마련, 올 2월에 작고한 소설가 이문구의 동시 유고와 초창기 한국아동문학의 개척자인 이주홍 선생의 1928년 작품 〈배암새끼의 무도〉를 새롭게 발굴해 실었다. 창비어린이는 창간과 함께 창비어린이 신인평론상을 제정 공모하는데, 이는 어린이문학 비평을 활성화하겠다는 편집위원진의 구체적인 의지표명으로 보인다.

〈동화읽는가족〉은 제호가 가리키는 것처럼 보다 다양한 독자층을 염두하고 만들어졌다. '창간의 말' 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동화읽는가족〉은 동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즐거운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작은 마당에 가장 먼저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둘러앉아 그야말로 '동화 읽는 가족' 을 이루고, 그러한 가족들이 모여 더욱 큰 마당을 만들어 나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창간작업 실무에 참여한 푸른책들 김민령 대리는 그동안의 어린이문학 잡지가 정작 어린이들은 독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동화읽는가족〉은 어린이를 독자층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편집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책 앞부분에 연재동화를 싣고 어린이책 단행본 편집처럼 일러스트를 삽입한 것이 모두 그 때문이라는 것.

아이들에게 부담 없는 읽을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기획의도대로 이달의 동화와 동시, 그리고 화제작 화제작가 인터뷰 등을 수록하는 한편, 아이들을 지도하는 어른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독서지도 매뉴얼과 전문가 서평 등 다양한 꼭지를 마련했다. 창간과 함께 '푸른문학상 작품 공모' 를 제정해 한국 아동문학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신인작가를 발굴하겠다는 의욕도 표명했다.

새로 창간된 어린이문학 전문지의 의욕과 소망이 어린이문학과 아동출판계의 큰 줄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김도언 기자